

월드컵 소식

“우정은 잠시 접어두자”

레알 마드리드 선수 8강전 맞대결 불가피

“우정은 잠시 잊어라” ‘지구방위대’ 레알 마드리드의 전·현직 대원들이 2006 독일월드컵 8강전에서 한술밥을 먹었던 동료들과 적으로 돌아서 조국의 명예를 위해 격돌한다. 이번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 중 레알 마드리드에 적응 둔 선수는 10명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아스날(15명)이나 첼시(14명)보다는 많지 않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축구스타 중에서도 알아들을 모두 불러들인 초호화 군단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은 각국 대표팀에서 키플레이어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한때 레알 마드리드에 몸을 담았던

선수까지 포함한다면 잉글랜드팀 못지 않다. 아트 사커의 지휘자 지네딘 지단은 지난 28일 스페인과의 16강전에서 클럽팀 동료 골키퍼 이케르 카시야스를 찢히고 쇄기골을 박았다. 지단은 오는 7월 2일 8강전에서 통산 6번째 월드컵 우승을 꿈꾸고 있는 클럽팀 동료 호나우두, 호베르투 카를루스, 호비뉴가 있는 브라질과 맞붙는다. 포르투갈과 8강에서 만나는 잉글랜드의 데이비드 베컴은 인터 밀란으로 이적하기 전 2시즌 동안 함께 뛰었던 루이스 피구와 맞대결을 펼쳐야 한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화려한 플레이를 펼쳤던 이들이 조국의 명예를 걸고 격돌하는 월드컵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피터팬’ 한기주의 고민



‘1회 징크스’ 언제 벗어나나

1회 실점 7경기 중 6경기 패 선발 등판 맨 코치진도 긴장

한기주는 ‘핸디맨(?)’. 프로야구 사상 첫 계약금 10억원 시대를 연 ‘피터팬’ 한기주(19·KIA)가 일단 점수를 주고 시작하는 ‘1회 징크스’에 시달리고 있다. 한기주는 29일 현재 14경기에 출장해 4승(1구완승) 8패, 방어율 4.28을 기록 중이다. 그런데 한가지 특이점은 선발 등판한 13경기 중 7차례나 1회에 실점했다는 것이다. 또 1회 실점한 경기 중 6경기에서 패전투수가 됐고 1점차로 진 경우 4경기나 된다. 다시말해 1회 실점으로 최소 4경기를 허공으로 날린 셈이다. 한기주의 경기당 평균 실점은 2.46점으로 그리 높지 않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1회의 고비를 넘기지 못해 한판한

점수다. 한기주는 팀이 4-6으로 패한 지난 28일 롯데전에서 1회에 2점을 내준 뒤 결국 4이닝 6안타 4자책점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이때문에 KIA 벤치도 한기주가 선발 등판하면 1회부터 긴장감이 팽돌 정도다. 그렇다면 이같은 ‘1회 징크스’의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신인으로서 부담감에 따른 초반 제구력 난조가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에 팀의 저조한 득점 지원도 문제다. 한기주는 유독 자신이 마운드에 들어서면 철저하게 침묵하는 선배들의 방망이가 야속할 뿐이다. 총 14경기 중 선발 등판한 13경기에서 득점 지원은 2.69점에 불과하다. 한기주는 결국 ‘자신의 실점은 곧 패배’라는 부담감을 안고 마운드에 오르게 되고 이같은 부담감은 경기 초반 실투 또는 자신감 없는 피칭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 감독도 “경기내용만 놓고 본다면 (한)기주는 선발하고 있다. 다만 선배타자들이 점수를 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4강 가면 보너스 2배

8강팀들 87억원 확보 4강 오르면 162억원

‘4강에 꼭 가야하는 이유 중 하나는 돈(?)’ 2006 독일월드컵축구 16강전 결과 유럽 6개 팀과 남미 2개 팀으로 8강이 압축됐다. 이들 대표팀은 내달 1, 2일 일제히 8강전 4경기를 치르는데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받는 성적 보너스다. FIFA는 이번 대회 상금 및 출전 수당으로 한일 월드컵 때 2억1천200만 스위스프랑(약 1천600억원)보다 크게 오른 3억 스위스프랑(약 2천272억원)을 내걸었다. 이 가운데 8강 팀들은 16강을 통과하면서 이미 1천150만 스위스프랑(약

87억원)씩을 확보했다. 이 액수는 8강전에서 승리하는 순간 2배 가까이 뛰오르게 된다. 3~4위 팀에게 각각 2천150만 스위스프랑(약 162억원)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우승 상금은 2천450만 스위스프랑(약 185억원), 준우승은 2천250만 스위스프랑(약 170억원)으로 3~4위 팀과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4강 진출 여부가 최소한 80억원 가량을 더 버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셈이다. 16강 진출은 이렇지만 8강행 문턱을 넘지 못한 8개 팀은 850만 스위스프랑(약 64억원)씩을 챙겼고, 본선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한국 등 16개 팀은 600만 스위스프랑(약 45억)씩을 버는데 만족하고 짐을 싸야했다. 또 본선 진출 32개국은 이미 대회 준비 자금으로 FIFA로부터 100만 스위스프랑(약 7억5천만원)씩을 선지급 받았다.



위성미와 김미현, 한희원, 김주연(왼쪽부터)이 29일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뉴포트의 뉴포트골프장에서 열린 US여자오픈골프 연습 라운드에서 각각 티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US여자오픈 ‘강풍·진흙탕 싸움’

집중 호우에 배수시설마저 미비 바닷바람에 노출...대회 차질 우려

29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뉴포트의 뉴포트골프장에서 개막될 제61회 US여자오픈골프대회가 강풍과 진흙탕에 벌어지는 악전고투가 될 전망이다. 뉴포트에는 지난 6주 330mm가량 엄청난 비가 쏟아졌고 이 가운데 90mm는 주말 집중

됐다. 양수기를 동원해 퍼낸 빗물이 무려 1천만ℓ가 넘지만 뉴포트골프장은 일부 병커에 아직도 물이 고여 있고 배수시설이 미비한 페어웨이는 진흙바닥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연습 라운드에도 18홀을 모두 돌

아본 선수가 거의 없었다. 게다가 대회 기간에도 비가 계속될 것이라는 기상예보에 따라 정상적인 대회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대서양에 인접한 뉴포트골프장은 나무가 없는 링크스타일로 조성돼 강한 바닷바람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 선수들은 이중고를 피할 수 없다. 대회 하루 전날 모처럼 맑은 날이 됐지만 연습 라운드에 나선 선수들은 시속 40km에 육박하는 강풍에 애를 먹었다. 이런 코스 여건 탓에 미국골프협회(US-

GA)가 바라는 오버파 스코어 우승은 예정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매 라운드 이븐파를 친다면 우승컵은 때려 놓은 당상이고 두 자릿수 오버파를 쳐도 상위권에 오를 지도 모른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긴 코스에 젖은 페어웨이, 무른 그린 등을 감안하면 장타자에게 절대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뉴포트골프장은 1, 2라운드 때는 6천564야드로 치러지고 3, 4라운드에서는 파3홀 2곳의 티박스를 뒤로 물러 이보다 훨씬 넓은 6천616야드에 이른다. 이는 US여자오픈 사상 가장 긴 코스였던 지난해 대회 개최지 체리힐스골프장(6천749야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여자 선수들이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루니 “골에 배 고프다”

“포르투갈과 8강전 반드시 첫 골 신고”

잉글랜드 축구대표팀 ‘공격의 핵’ 웨인 루니(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006 독일월드컵축구 포르투갈과 8강전을 앞두고 골에 대한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루니는 29일 AP통신과 회견에서 “확실히 골에 대해 배고프다. 이번 경기든 다음 경기든 가능한 한 빨리 골을 넣고 싶다”고 말했다. 조별리그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2차전에서 월드컵 데뷔전을 치른 루니는 스웨덴과 3차전, 에콰도르

와 16강전에 출전하며 점차 나아진 기량을 선보이고 있지만 골을 넣지는 못했다. 지난 4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 도중 오른쪽 골절상을 입었던 루니는 “의료진은 열심히 치료하면 나은 것이라 했고 결국 회복됐다”면서 “결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년 전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04)에서 같은 부위를 다치게 했던 팀인 포르투갈과 이번 월드컵에서 다시 맞붙게 되자 “복수를 생각하며 경기를 치러지는 않겠지만 이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독일 ‘꿈★은 이루어진다’

한국 붉은악마 구호 독일어로 바꿔 소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독일과의 준결승전에서 붉은 악마의 함성과 함께 등장했던 응원구호 ‘꿈★은 이루어진다’가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독일어로 등장했다. 독일 유력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퐁(SDZ) 인터넷판은 29일 독일 월드컵이 치러지는 경기장 관중석에서 응원객들이 치켜든 응원 구호 플래카드 중 눈에 띄는 구호들을 사진과 함께 소개했다. 관중석에 내걸린 한 대형 플래카드 사진에는 흰색 바탕에 검은 색 글씨로 ‘Traume Verwirklichen’이라고 쓰여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는 ‘꿈★은 이루어진다’의 정확한 독일어 번역이다. 신문은 사진속의 이 구호에 대해 “대형 플래카드 용으로 관중은 구호”라며 “꿈은 누구나 꿀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논평했다. 이 밖에 한 가나팬이 가나-브라질 경기에서 “우리는 공정한 심판을 원한다”면서 “가나 대표팀이여, 사랑한다”라고 쓰인 종이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 “토고에 집에 가라”라는 비유적 의미가 담긴 ‘TO GO HOME’ 등도 눈에 띄는 구호로 선정됐다. 또 “사장님 혹시 찾으셨다면 전 여기 있어요”, “할머니 생신 축하해요. 저는 월드컵 보러와서 찾아볼 수는 없어요”라는 열기 문구도 눈에 띄었다고 신문은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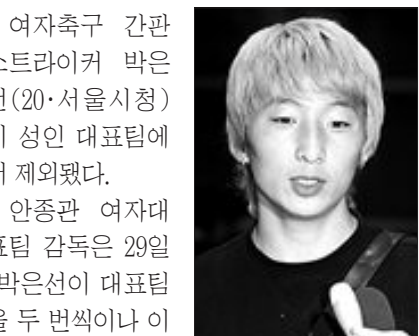
이형택이 29일 올잉글랜드클럽에서 벌어진 윌블던테니스 1회전에서 플라비오 사레타(112위·브라질)의 공을 받아 넘기고 있다. /연합뉴스

이형택 윌블던테니스 2회전 진출

한국 남자테니스의 대물보 이형택(세계랭킹 102위·삼성증권)이 총상금 183억원이 걸린 윌블던테니스에서 단식 2회전에 진출했다. 이형택은 29일 올잉글랜드클럽에서 벌어진 1회전에서 플라비오 사레타(112위·브라질)를 3-0(7-6(12-10) 6-3 7-5)으로 꺾고 2회전에 올랐던 이형택은 그러나 올해도 3회전 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휴이트(9

위)와 3회전 진출을 다룬다. 타이브레이크까지 가는 접전 끝에 1세트를 힘겹게 따낸 이형택은 자신감을 얻은 듯 이후 한 세트도 빼앗기지 않고 2회전 진출을 확정지었다. 윌블던에서 2002년과 지난해 등 2차례 2회전에 올랐던 이형택은 그러나 올해도 3회전 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휴이트는 2002년

여자축구 간판스타 박은선 훈련 이탈...대표팀서 제외



여자축구 간판스타 박은선(20·서울시청)이 성인 대표팀에서 제외됐다. 안종관 여자대표팀 감독은 29일 “박은선이 대표팀을 두 번씩이나 이탈하며 훈련을 하지 않으려고 해 결국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안 감독에 따르면 대표팀은 지난달 25일 소집됐는데 박은선은 한 차례 팀을 떠났다가 지난 7일 복귀한 뒤 다시 9일 축구협회 임원들과 면담을 마치고 다시 팀을 이탈했다.

안 감독은 “처음 박은선이 이탈했을 때 다른 선수로부터 ‘박은선이 개인적으로 힘들어 한다. 쉬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축구는 선수 한 명이 하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훈련을 하지 않는 선수를 대표팀에 계속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달 15일 호주 에델레이드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축구 선수권에 참가하는 대표팀의 전력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